

광주·전남 건설경기 끝모를 추락...정부 맞춤형 지원 시급

지난해 공사 실적 각각 5209억·7582억 증발...1년새 15% 이상 감소 민간 위축·공공 발주 부진 겹쳐 하도급 직격탄...수주 갈수록 축소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전문건설업계의 공사 실적이 1년 새 각각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택·개발사업 위축과 공공 발주 부진,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악화가 맞물리며 지역 건설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전남도회가 발표한 '2025년도 실적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은 2조 3639억원으로 전년(2조 8849억원) 대비 18%(5209억원) 감소했다. 전남은 4조 2839억원으로 전년(5조 421억원)보다 15%(7582억원) 줄었다.

광주는 2023년 3조 2737억원에서 2024년 2조 8849억원, 2025년 2조 3639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남 역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하락 흐름이 뚜렷했다. 전국 전문건설 기성총액도 97조 3162억원으로 전년(11조 5168억원) 대비 11.9% 감소해 전반적인 업황 부진을 확인했다.

도급 형태별로 보면 하도급 부문의 타격이 크게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원도급 공사 실적은 46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3% 감소한 반면 하도급은 1조 8977억원으로 19.9% 줄었다. 전남 역시 원도급은 8.6% 감소에 그쳤지만 하도급은 17.3% 급감했다.

이는 종합건설사의 자금난과 공사 물량 조정이 곧바로 지역 전문업체 일감 축소에 이어졌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전남에서는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법정관리 증가가 하도급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미분양 장기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규 착공이 크게 줄었고 공정 진행 속도와 발주 자체가 둔화된 점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줬다. 공공 부문 역시 기대만큼 발주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수주 물량 자체가 축소됐다. 자체비와 인건비 변동성도 여전히 공사 진행 속도마저 늦어지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사·도별 실적액을 보면 광주는 전년 대비 81.9%, 전남은 8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산(88.3%), 대전(92.1%), 경기(89.5%), 충북(96.5%), 충남(95.0%) 등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광주·전남의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배경에는 지역 원도급사의 부도·법정관리 증가도 자리하

고 있다.

그동안 지역 종합건설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하도급 물량을 받아오던 전문업체들이 일감 자체를 잃으면서 실적 감소가 직격탄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지역 제한'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공사의 일정 비율을 관내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 제한'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 종합건설사가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그 아래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 물량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경기 집적기일수록 지역 업체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지역 내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또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정된 공사 물량 안에서만 시장이 움직인다 보니 상반기 일감 공백이 커지고 이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 환경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건설업 전반이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은행권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공공 공사 조기 발주와 신규 사업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어려움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PF와 은행 대출이 막혀 착공을 못 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 여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한'을 강화해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문건설업체도 함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분당 담합 의혹 업체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줄줄이 '가격 인하'

사조CPK·CJ제일제당·대상·삼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 사조CPK는 23일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품목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 물엿, 과당 등이며, 실수요처·대리점·기업간거래(B2B)·소비자용(B2C) 등 모든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라며 "고객과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상도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 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



CJ제일제당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 인하율은 백설탕·안설탕, 갈색설탕 등 일반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최대 6%(평균 5%)이며, 백설탕·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 전 제품은 최대 6%(평균 5.5%) 수준이다.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판매대. /연남뉴스

정원 물엿 등 소비자간거래(B2C) 제품 가격을 각각 5% 내린다고 밝혔다. 또 기업간거래(B2B)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전분당 외에도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 담합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관계자드리 재판에 넘겨진 제분·제당업체들도 지난 달 연이어 가격 인하 방침

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렸고, 삼양사도 B2C 및 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으며, 대한제분도 밀가루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6% 내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

건설 불황 직격탄...작년말 1.7%

건설 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말 1.71%로, 1년 전보다 0.4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IR(기업설명)북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2011년 이후 연말 기준 역대 최고치다.

건설업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 말까지만 해도 0%대에 그쳤으나, 2023년 말 1.14%, 2024년 말 1.22% 등 최근 2년여간 1%대로 뛰었다.

지난해 연중으로는 1~3분기 말 연체율이 1.32~1.34% 수준으로 회복하다가 4분기 말 1.71%로 크게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2024년 1분기 말 1.76%로, 2012년 3분기 말(1.77%)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내려온 적이 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7%로, 2024년 말(0.34%)보

다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 역시 2013년 말(1.06%) 이후 연말 기준 12년 만의 최고치다.

건설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물과 토목 건설을 포함하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에만 3.9% 줄었다. 지난해 10% 가까이 급감한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는 -1.4%p에 이른다.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와 내년 건설투자가 2.6%, 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더딘 회복세다.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으면서 '추정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은행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구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손실 등으로 구분해 건전성을 관리한다.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가리킨다.

기업은행의 추정손실은 지난해 말 6389억원으로 2024년 말(5338억원)보다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연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창업 가장 활발한 산업, 광주는 농림어업·전남은 광업

지난해 신생기업 비율 11%대

광주에서 개업이 가장 활발한 산업은 농림어업, 전남은 광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센터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 기업은 광주 19만8877개·전남 25만7432개로, 전년도보다 각각 0.8%(15977개)·1.8%(4641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활동기업 증가율은 1.4%로, 충남(3.2%), 경기(2.8%), 세종(2.6%), 인천·강원(각 2.2%) 순으로 높았다.

그해 신생기업은 광주가 전년도보다 3.7%(851개) 줄어든 2만2402개, 전남은 2.6%(803개) 감소한 2만9782개로 집계됐다.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기

업 신생률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11.7%·11.6%로, 전국 평균 12.1%를 밑돌았다. 광주·전남에서 신생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각각 농림어업(23.3%)과 광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농림어업 분야 활동기업은 219개로, 이 가운데 신생기업은 51개였다. 농림어업 신생기업은 전년도보다 37.8%(147개) 늘었다.

전남 광업 활동기업은 539개로, 신생기업은 20.4%(110개) 비중을 차지했다. 광업 신생기업은 1년 새 34.1%(28개) 증가했다.

광주는 정보통신업 17.6%, 금융·보험업 17.0%, 교육서비스업 16.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16.5%, 숙박·음식점업 16.3% 등의 신생률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광업에 이어 금융·보험업 18.2%, 교육서비스업 18.2%, 정보통신업 17.5%, 예술·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7.5%, 농림어업 1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신생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광주는 제조업(6.2%), 전남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5.0%)이었다.

광주 제조업 활동기업은 전년도보다 1만766개로, 전년도보다 1.0%(112개) 줄었다. 전남은 제조업 신생기업이 1년 새 7.1%(105개) 줄고 소멸기업이 더 많아지면서 활동기업이 0.7%(118개) 감소한 1만5661개에 그쳤다.

활동기업 감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주지역은 숙박·음식점업, 전남은 도·소매업이었다.

광주 숙박·음식점업 활동기업은 전년도보다 1.5%(358개) 줄어든 2만3972개였고, 전남 도·소매업 종은 0.8%(421개) 감소한 5만2399개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광주 동구청에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협약식에는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동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5000만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동구는 1

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소문난 무침회·디저트 팝업 스토어 오픈

광주신세계는 "무침회와 디저트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다양한 인기 먹거리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본관 지하 1층에서는 오는 3월 8일까지 강릉 중앙시장에서 즐 서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강릉 소문난 무침회' 팝업을 운영한다. 해당 팝업에서는 '오징어 무침회' 단품과 '꼬막 무침회' 단품을 선보인다. 함께 판매하는 구운 납작만두에 무침회를 싸먹는 세트 메뉴도 만날 수 있다. 팝업 기간 중 포장 주문 고객에게는 보냉팩을 증정한다.

같은 층에서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인기 디저트 매장으로 이름을 알린 '따담' 팝업 스토어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 따담은 우유 식빵에 과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인 '후르츠 산도'로 유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강릉 소문난 무침회 팝업 스토어 직원이 납작만두 무침회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명하다. 대표 메뉴로는 딸기와 샤인머스켓 등을 넣은 후르츠 산도와 함께 '두바이식 딸기초코 산도' 등이 있다.

이 밖에 두바이 존득 쿠키(두존쿠) 맛집으로 유

명한 '두바이 가든'도 3월 5일까지 팝업을 진행한다. 두바이 가든에서는 기본 두존쿠 외에도 헤이즐넛 존득쿠키, 황치즈 존득쿠키 등을 만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지원 애니 '기가빌더' 다음달 4일 EBS에서 첫 방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GICON의 지원으로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기가빌더'가 오는 3월 4일 EBS에서 첫 방송된다"고 23일 밝혔다.

기가빌더는 GICON의 '2020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스튜디오 파일럿 콘텐츠 제작지원'과 '2021 레벨업 프로젝트 제작지원'을 통해 기획 및 본편 제작을 지원받은 프로그램이다.

기가빌더는 소년 아빈과 다섯 동물들이 최첨단 탐사 차량을 타고 화성을 누비는 모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방송은 3월 4일 EBS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목요일 오전에 방영된다. 이어 3월 13일에는 어린이 전문 채널인 '투니버스', 3월 27일부터는 '브라보키즈' 채널에서도 방영되는 등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동시 편성을 확보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846.09 (+37.56)
↓ 코스닥	1151.99 (-2.01)
↑ 금리(국고채 3년)	3.154 (+0.011)
↓ 환율(US D) <오후 4시 41분 기준>	1441.30 (-5.30)